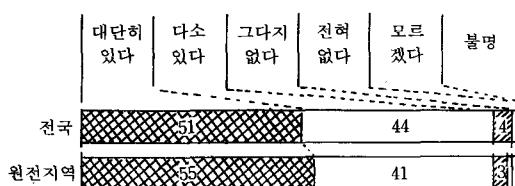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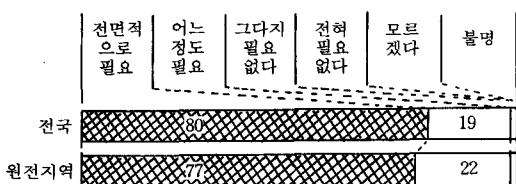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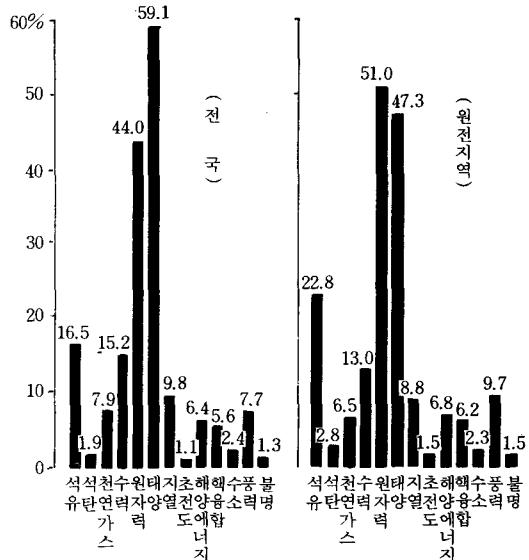
○ 지구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가?



○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협력이 필요한가?



○ 장래 有用한 에너지는 무엇이 될 것인가?



原電建設의 必要性을 認定

일본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안전연구협회, 亞太과학기술협회 공동주최로 작년 10월 16일과 17일 이틀동안 東京에서 개최된 「제4회 日臺원자력안전세미나」에서 대만전력공사의 姚大全씨가 최근의 대만에서의 여론조사결과를 소개하였다. 다음은 그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.

1. 臺灣電力季報 제3호가 1987년 2월에 전기요금 지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나타냈다(유효응답 36,367 건).

(1) 전원개발의 우선도가 높은 것은?

○원자력: 45.4%

○수력: 3.7%

○화력: 10.8%

○기타: 6.8%

(2) 전원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은?

○안전성: 70.0%

○환경: 13.5%

○경제성: 12.4%

○연료원: 3.8%

2. 臺灣電力季報 제12호가 1989년 5월에 전기요금 지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나타냈다(유효응답 32,148건).

(1) 전원개발의 우선도가 높은 것은?

○원자력: 57.5%

- 수 력:26.4%
- 화 력:8.4%
- 기 타:7.6%

(2) 전원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은?

- 안전성:67.1%
- 환경:17.3%
- 경제성:11.3%
- 연료원:4.1%

3. 清華大學이 1987년 12월에 실시한 「원자력발전소와 공중인식」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(유효응답 1,923건)에서

(1) 대만 전체

-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강력히 찬성한다 :1.8%
- 찬성한다:40.1%
- 찬성하지 않는다:19.8%
- 강력히 반대한다:1.0%
- 의견 없음:11.3%
- 모르겠다:22.8%

(2) 7,8호기 사이트주변을 포함해,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주민

- 강력히 찬성한다:1.1%
- 찬성한다:19.4%
- 찬성하지 않는다:31.7%
- 강하게 반대한다:5.5%
- 의견 없음:12.4%
- 모르겠다:23.2%

4. 일간지 「連合報」가 1988년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(유효응답 1,360건)에서

-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지지:41%
-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 반대:11%
- 기존 원자력발전소에 반대하지 않지만,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는 반대:13%
- 의견 없음:18%

5. 李교수가 1988년 7월에 실시한 「臺北縣의 장래개발」이란 제목의 여론조사(유효응답 12,052건)는 대북현의 지방행정관 및 주민대표, 종학교 이상의 교원, 시·현청직원·경찰관, 오피니언·리더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.

- 7,8호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절대반대 :27.3%
- 조건부 찬성:66.2%
- 용인:6.4%

6. 일간지 「中國時報」가 1989년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(유효응답 988건)에

- 원자력발전소는 꼭 필요하다 : 7.9%
 - 7,8호기의 건설에 강력히 동의:33.6%
 - 7,8호기의 건설에 동의:20.2%
 - 7,8호기의 건설에 반대:5.8%
 - 7,8호기의 건설을 강력히 반대:7.7%
- 중국시보의 분석에 의하면, 고학력자 및 젊은 층이 7,8호기의 건설에 동의하고 있다.

7. 여론조사연구소가 1989년 6월에 실시한 「7,8호기 건설계획에 관한 여론조사」(유효응답 5,420건)에서

-7,8호기의 건설은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많다.

- 대북지구의 대부분:56.9%
- 대만 전국:53.2%
- 보도관계자:53.2%
- 주민대표:55.3%
- 기술자:53.0%
- 사업자:40.9%
- 교수:30.0%
- 환경보호단체:0.0%

당초의 계획에서는 鹽寮地區 주민 1,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, 반대파의 방해 때문에 201건의 유효응답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. 그 응답의 79.1%는 鹽寮地區에서의 건설계획에 반대했다.